

#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후 먹거리 변화

친환경 인증 품목 공급 8배 증가  
지역생산 인증 품목 33개로 늘어  
농가 소득창출·경제활성화 기여

광주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내 학교에 친환경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광주광역시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식재료의 공급 품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2013년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 뒤 친환경 식재료와 우리밀 가공식품, 전통 장류, 유제품 등을 공급하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내 학교에 공급하는 농산물 품목은 월평균 116개에 달하며, 농산

물 외에 우리밀 가공식품과 전통 장류까지 더하면 월평균 230여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구를 포함해 광주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품목은 토마토와 우리밀, 블루베리, 애호박, 깻잎 등 약 33개 품목으로 집계된다. 이는 11년 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했을 당시 4개 품목과 비교하면 무려 8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대한 만족은 일선 학교의 연간 식재료 사용량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센터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에 공급한 친환경 식재료 규모는 23억 65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개소 첫해에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학교에 공급한 11억 7700만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밖에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



광주 남구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생산지를 견학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경 로컬푸드 생산기반 확대 노력으로 남구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는 센터 개소 전 7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먹거리를 더 저렴하

게 제공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역 농가는 계획 생산을 할 수 있게 돼 모두가 윈윈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중대재해·온열질환 예방 홍보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24일 오전 선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아파트(2A-1) 건설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온열질환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 호우 등으로 인해 각종 재해에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장의 안전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안전"이라며 "지역사회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여름철 지역 중소제조업체 건설 현장, 산업단지를 다니며 온열질환 예방 안전 수칙(물·그늘·휴식)을 홍보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 초등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 운영 북구, 5개 구립도서관서 진행

광주 북구가 관내 5개 구립도서관(신용·운암·양산·일곡·중흥)에서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에서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독서의 재미를 알리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도서관별 이색적인 주제의 도서·독후활동이 이뤄진다.

신용도서관은 반려동물에 관한 도서를 활용해 '반려동물과 행복한 우리들'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운암도서관은 각종 놀이를 통해 도서관 친밀감을 높이고자 '도서관을 플레이하다' 주제의 강좌가 진행된다.

양산도서관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도서관에서 배우는 전쟁과 평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일곡도서관은 역사 속 인물과 당시 시대상을 배울 수 있는 '역사 속 인물과 함께 떠나는 독서교실'이 준비돼 있다.

중흥도서관에는 영어 과목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실이 마련돼 있다.

북구는 독서 교실 수료 학생 전원에게 독서 노트 등 시상품을 제공하고 우수 수강 학생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서관별 운영 기간은 △신용도서관 8월 6일~8일 △운암·양산도서관 8월 6일~9일 △일곡도서관 8월 12일~14일 △중흥도서관 8월 21일~23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북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구립도서관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여름방학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서구, 물놀이 축제·마술 공연 등

광주 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오는 26~28일까지 화정1동과 풍암동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물놀이와 축제가 펼쳐진다. 27일에는 서빛마루문화회관과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콘서트와 마당놀이 열릴 예정이다.

서구 화정1동은 26~27일 광주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우리동네 썸머 풀캉스'를 개최한다. 서구는 학교 운동장에 대형·중형 워터슬라이드 및 수영장을 설치하고 물총대전, 마술공연, 댄스타임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정1동은 지난해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운동장 공유를 통해 마을과 학교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어 서구 풍암동은 27~28일 '스페셜 썸머 워터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풍암신암로 일대(주은모아아파트·신암초등학교 사잇길)에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을 설치하고 물풍선 피구 등 수중게임, 물총놀이, 디제이 풀파티 및 버블 폼파티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27일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마술' 공연이 펼쳐진다.

다수의 방송 출연 및 해외 공연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경재 마술사는 이날 방학을 맞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소년과 평생 마술만 해온 마술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27일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는 어린이 마당놀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공연이 열린다. 세계고전문학인 나쓰메 소세키 소설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작가들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 애니메이션과 마당놀이, 국악뮤지컬 넘버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23일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에 무더위를 식혀줄 도심 물놀이장을 개장한 바 있다. **정성아 기자**



지난해 광주 서구가 화정1동 광주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우리동네 썸머 풀캉스' 모습. **광주 서구 제공**

## 디자인휴먼협동조합, 마을정원 현장 조성 교육

### 31일까지 화정동 일원

디자인휴먼협동조합(이사장 노민영)은 마을정원 현장 조성교육을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서구가 주최하고 디자인휴먼협동조합과 화정3동이 주관하는 마을정원현장 조성교육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화정동 콩콩어린이공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괄코디네이터, '2014대한민국 정원문화박람회' 전시예술 총감독을 역임한 노민영 디



자인휴먼협동조합 이사장이 교육생 10여명을 대상으로 화훼 관리 등을 지도하며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있다.

디자인휴먼협동조합은 화훼사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민영 디자인휴먼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훼종사자, 마을정원사 등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기업 이념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휴먼협동조합은 화훼, 가드닝,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영리기업과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일자리창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 형태이다.

**정성아 기자**

##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소음피해 대책 특위' 구성

### 군공항 이전 추진·피해보상 현실화

광주 광산구의회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산구의회는 2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

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특위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공병철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위'는 공병철 위원장과 박현석 부위원장, 윤혜영·박미옥·정재봉·양만주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전투기 소음피해 문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군소음 보상법' 피해보상 기준 완화 등 소음피해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